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조사의 목적

- 관내 제조업체의 2025년 3/4분기 경기전망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은 물론 정부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음.

2. 조사 기간

- 2025. 5. 30(금) ~ 6. 13(금)

3. 조사 대상

- 관내 제조업체 (92개 표본업체)

4. 조사 항목

- 전반적인 경기실적 및 전망
- 경기전망 및 애로 요인
- 영업이익, 생산량, 설비투자 등 기업 실적 및 전망
- 대외여건들의 전개 방향 및 한국경기의 전망 등

5.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의 작성 방법

- 분기별로 응답 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 불변 또는 악화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으로 표시된 업체가 악화로 표시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 \frac{\text{호전표시업체수} - \text{악화표시업체수}}{\text{총유효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전분기수준=100

I . 2025년 3/4분기 기업 경기 전망

1. 기업경기전망(BSI) 지수

- 최근 관내(순천, 구례, 보성) 표본 제조업체 92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3/4분기 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기업경기 전망지수가 '93'으로 조사되어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2/4분기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
- 응답 업체 분포를 보면, 3/4분기 경기가 2/4분기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2.2%였으며, 비슷할 것이라 응답한 업체는 44.4%, 악화할 것이라는 업체는 33.3%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2/4분기 실적 지수는 '61'로 나타나,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된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전망치	97	100	116	86	88	96	97	103	72	108	107	70	87	113	100	71	75	100	93
실적치	56	88	45	108	75	63	83	86	58	100	74	96	78	100	75	83	52	61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임.
- BSI세부 항목별로 보면 매출액 89, 영업이익 86, 설비투자 82, 자금사정 96로 조사됨.

2. 귀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 및 투자 실적은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 대비 어느 수준입니까?

- 매출 실적을 '크게 하향'한 업체가 17.9%, '10% 이내 소폭 하향'한 업체가 39.2%로 집계됐으며, '목표치 수준'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5.0%, '10% 이내 소폭 상향'한 업체는 17.9%로 나타남.

(%)

매출실적	크게 하향	소폭하향 (10% 이내)	목표치 수준	소폭상향 (10% 이내)	크게 상향
비 중	17.9	39.2	25.0	17.9	0.0

- 투자 실적을 '크게 하향'한 업체가 14.8%로 조사됐으며, '10% 이내 소폭 하향'한 업체는 25.9%, '지난해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업체는 48.2%, '10% 이내 소폭 상향'한 업체는 11.1%를 차지함.

(%)

투자실적	크게 하향	소폭하향 (10% 이내)	목표치 수준	소폭상향 (10% 이내)	크게 상향
비 중	14.8	25.9	48.2	11.1	0.0

3. 올해 상반기 기업 경영과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내외 애로요인이나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 올해 상반기 기업 경영과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내 애로요인이나 리스크로 '내수수요 부진'이 65.6%, '자금부족' 응답이 3.1%, '원자재·부품 수급문제' 응답이 25.0%로 집계됐으며, '기타' 응답은 6.3%로 조사됨.

(%)

대 내	내수수요 부진	자금부족	원자재·부품 수급문제	인력·노사문제	공정·기술문제	기타
비 중	65.6	3.1	25.0	0.0	0.0	6.3

- 대외 애로요인이나 리스크로는 '해외수요 부진' 응답이 15.4%, '환율 변동' 응답이 30.8%, '관세·수출규제' 응답과 '물류차질' 응답이 각각 7.7%로 나타남. '원자재가 상승' 응답은 34.6%로 집계됐으며, '기타' 응답은 3.8%를 차지함.

(%)

대 외	해외수요 부진	환율 변동	관세·수출규제	물류차질	원자재가 상승	기타
비 중	15.4	30.8	7.7	7.7	34.6	3.8

4. 현재 시점에서 귀사 주력사업(제품)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자사 주력사업이나 제품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도입기(시장초기)'라고 응답한 업체는 3.6%, '성장기(수요 증가)'라고 응답한 업체는 21.4%로 집계됐으며, '성숙기(시장 포화 상태)' 응답은 53.6%, '쇠퇴기(시장 감소)' 응답은 21.4%로 나타남.

(%)

항 목	도입기 (시장초기)	성장기 (수요 증가)	성숙기 (시장 포화 상태)	쇠퇴기 (시장 감소)
비 중	3.6	21.4	53.6	21.4

5. 현재 시점에서 귀사 주력사업(제품)의 시장 내 경쟁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자사 주력사업이나 제품의 시장 내 경쟁상황 관련, '경쟁우위 지속' 응답이 18.5%, '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 응답이 7.4%로 조사됐으며, '격차 사라져 경쟁 치열' 응답이 70.4%, '경쟁업체에 추월(경쟁열위)' 응답이 3.7%를 차지함.

(%)

항 목	경쟁우위 지속	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	격차 사라져 경쟁 치열	경쟁업체에 추월 (경쟁열위)
비 중	18.5	7.4	70.4	3.7

6. 시장 포화/쇠퇴에 대비하여, 주력사업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까?

- 주력사업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인 업체가 60.7%, 그렇지 않은 업체가 39.3%로 집계됨.

(%)

항 목	예	아니오
비 중	60.7	39.3

7-1. (6번 ②선택) 귀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 중 23.1%는 '자금 등 경영상황 악화'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신사업 아이템 부재' 응답과 '인력 등 제반여건 부족' 응답이 각각 7.7%로 나타남. '시장 및 사업성 확신 부족' 응답은 61.5%로 조사됨.

(%)

항 목	자금 등 경영상황 악화	신사업 아이템 부재	인력 등 제반여건 부족	보수적인 경영 방침	시장 및 사업성 확신 부족	기타
비 중	23.1	7.7	7.7	0.0	61.5	0.0

7-2. (6번 ①선택) 귀사의 주된 신사업 형태는 무엇입니까?

- 업체의 신사업 형태는 '자체 R&D(Make)'라고 응답한 업체가 62.5%였으며, '외부와 협력(Collaboration)' 응답이 31.3%, '기타 방식' 응답이 6.3%를 차지함.

(%)

항 목	자체 R&D (Make)	외부와 협력 (Collaboration)	인수합병 (M&A)	기타 방식
비 중	62.5	31.3	0.0	6.3

7-3. (6번 ①선택)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에 대한 성과와 기대는 어떻습니까?

-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의 성과와 기대는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어 성과 기대' 응답이 35.7%로 나타났으며, '이미 시장성과 창출 중', '초기 시장반응 미미', '외부요인으로 추진 차질' 응답이 각 7.1%로 집계됨. '아직 판단 어려움' 응답은 42.9%로 나타남.

(%)

항 목	계획대로 추진되어 성과 기대	이미 시장성과 창출 중	초기 시장반응 미미	내부요인으로 추진 차질	외부요인으로 추진 차질	아직 판단 어려움
비 중	35.7	7.1	7.1	0.0	7.1	42.9

8.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귀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업체가 꼽은 1순위는 '기술개발/제품 완성도 부족'이 20.8%, '자금 조달 애로'가 33.3%, '신사업 시장환경 불확실성'이 29.2%, '판로확보 및 유통경로 개척 애로'와 '기타' 응답이 각각 4.2%로 집계됐으며, '규제·인허가 등 제도상 문제' 응답이 8.3%를 차지함.

(%)

1순위	기술개발/ 제품완성도 부족	자금 조달 애로	신사업 시장환경 불확실성	판로확보 및 유통경로 개척 애로	규제· 인허가 등 제도상 문제	외부 협력기관과 협업 차질	담당인력· 전문인재 부족	의사결정 지연/ 추진력 약화	기타
비 중	20.8	33.3	29.2	4.2	8.3	0.0	0.0	0.0	4.2

- 2순위는 '기술개발/제품완성도 부족' 응답과 '판로확보 및 유통경로 개척 애로' 응답이 각각 14.3%, '자금 조달 애로'가 19.0%, '신사업 시장환경 불확실성'과 '규제·인허가 등 제도상 문제', '외부 협력기관과 협업 차질' 응답이 각각 4.8%씩 차지했고, '담당 인력·전문인재 부족' 응답이 38.0%로 조사됨.

(%)

2순위	기술개발/ 제품완성도 부족	자금 조달 애로	신사업 시장환경 불확실성	판로확보 및 유통경로 개척 애로	규제· 인허가 등 제도상 문제	외부 협력기관과 협업 차질	담당인력· 전문인재 부족	의사결정 지연/ 추진력 약화	기타
비 중	14.3	19.0	4.8	14.3	4.8	4.8	38.0	0.0	0.0

Ⅱ. 최근 BSI 추이

